



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, 말하고,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

목장교회 나눔지

[6월, 마음에 새기는 말씀 - 로마서 5장 1절]

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

얼음 깨기

'감사'에 관하여

교회행사

“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.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.” <제임스 패커, 거룩의 재발견>
감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있는지를 보여 줍니다.
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볼까요?

- 1_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?
- 2_ 우리 목장 모임을 함께하며 감사의 제목은?
- 3_ 현재 직면한 어려움/상황 중에도,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?

6월

- 3-4일 더함공동체 수련회
- 10일 결혼예비학교 종강
- 18일 어와나 1학기 종강
- 30-7/2 더원공동체 수련회

7월

- 15-16일 유아/유치/초등1여름사역
- 17-18일 더말씀으로-이지용목사
- 21-23일 중등부/고등부여름수련회
- 22-23일 초등2/초등3여름사역
- 28-29일 지역어린이 초청물놀이

경배 찬양

그럼에도 불구하고

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
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
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
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

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
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
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

선교

[곽미정 선교사]

기니비사우

1. 매 주마다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
2. 말라리아의 위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

소식

1. 더비기닝 선교학교

선교적 삶은 모두의 사명입니다. 선교를 깊이 이해하고, 현장을 살기 위한 선교학교에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.
6주 훈련) 7/16~8/19, 주일 오후 5:30~9:00 현지 훈련) 8/19-8/25 캄보디아

2. 주일학교 여름 사역 섬김이 모집

여름 사역 일정이 다가오면서, 각 부서별로 특별히 섬김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각 부서별 일정을 보시고, 함께 아름다운 헌신으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한문장 큰 울림

만일 내게 일천 생명이 있으면
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렵니다.

루비 캔드릭 (1883-1908)
24세에 한국에 와서, 끝까지
조선을 사랑한 선교사

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
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(로마서 11장 1절)

하나님께서서는 내 삶에 이 어려운 순간들 속에도
진정 나를 기억하시며 늘 함께하시나요?

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,
친구, 지인을 기억하고 계신가요?

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, 위와 같은 질문을 한 때가 있
지 않았나요? ‘하나님의 신실하심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
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질문입니다. 바울은 로마서 9-11장에
“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
‘그럴 수 없다!’라고 선언하고 이를 논증합니다. 오늘 말씀
을 통해,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
는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

1_지금도 남은 자를 두신 하나님 (1-6절)

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. 1절
에서 ‘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
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
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’(1절) 임을 논증합니다.

- 1) 바울 자신 -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자기
백성을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.
- 2) 칠천 명 - 아합 때 엘리야는 홀로 믿음에 한탄했지만,
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칠천명 예비하셨습니다.

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
니다. 유대인 대다수가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, 믿음의 사람
을 남겨두셨습니다. ‘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’ 는 그
때의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곧 **오늘의 교회**이지요 그
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‘오직 은혜’ 뿐입니다.

[질문]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아서, 혹은
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낙심했던 때가 있나요? 이 말씀은
그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나누어 봅시다.

[나눔]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보여주신 ‘하나님의 은혜’는
무엇인가요?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같이 나누어 봅시다.

2_이스라엘의 상태 (7-10절)

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경험하지 못한 유대인
의 상황을 설명합니다. ‘그러즉 어떠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
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
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’(7절) 이는 곧 이스라엘은 율법을 추구
했어도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(9:31)과 열심에도 불구하고
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(10:2-3)을 의미합니다.

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**하나님의 주권적 선택**(9:14-15)을 의미
합니다. 애굽의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, 광야 세대
완악하게 됨과 불순종이 지금의 유대인과 동일함을 드러냅니다.
이를 통해, “**과정의 최종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, 사람의 거절
결정을 존중하시는 결과**”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[질문] ‘하나님의 주권’과 ‘인간의 선택’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
각하고 있었나요?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

[나눔] 이 악한 세대 속에도 ‘택하심의 은혜’로 함께하고 계신
하나님의 마음, 열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봅시다.

3_그러면 가망은 없는 것일까? (11-12절)

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 실패를 불러왔다면(7-10절) 이스
라엘에게 소망은 남아있는 것일까요?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
은혜는 여전할까요? ‘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
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
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’(11절)

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넘어졌고, 유대인들은 이
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질투를 갖도록 그냥 두고 계십니다.
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은 먼저 달리다가 넘어졌고, 이
방인들은 예수님 의지하여 먼저 결승점에 다다른 것 뿐이지요
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바라며 달려가면 됩니다.

오늘, 비틀거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도 끝내 쓰러지게 버려두
지 않으십니다. 끝까지 함께하시며,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
의 그 열정과 그 크신 긍휼 안에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.

[도전]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.
오늘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, 다시 돌아가길 서로 격려합니다.